

말라기서 개요

2 "나는 너희를 사랑한다. 나 주가 말한다. 그러나 너희는, '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?' 하고 묻는다.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더냐? 나 주가 말한다. 그런데도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, 3 에서는 미워하였다. 에서가 사는 언덕은 별거숭이로 만들고, 그가 물려받은 땅은 들짐승들에게 넘겨 주었다. 6 "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제 주인을 두려워하는 법인데, 내가 너희 아버지라고 해서 너희가 나를 공경하기라도 하였느냐? 내가 너희 주인이라고 해서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기라도 하였느냐?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. 제사장들아, 너희가 바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자들이다. 그러나 너희는, '우리가 언제 주님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?' 하고 되묻는다.

1. **선지자 말라기:** 말라기 라는 이름의 뜻은 '나의 특사 (메신저)' 입니다. 말라기를 이름으로 보지 않고 책의 제목으로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선지자의 이름으로 받아들입니다. 3 장 1 절에서 나의 특사 라는 말이 나오는데, 그 말이 말라기 입니다.
2. **저술 시기:** 말라기의 저술 시기는, 말라기서 안에 특별하게 시기를 명시하는 내용은 없지만, 백성과 제사장의 죄에 대하여 언급되는 내용들이 느헤미야서와 에스라서의 내용과 비슷하기 때문에, 그리고 1 장 8 절에서 '총독' 이 언급되고 있어서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같은 시대인 주전 5 세기 중반으로 예상합니다. 특히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있다가 잠시 페르시아로 돌아갔던 시기에 (주전 433 년경) 적힌 것이 아닐까 추측합니다.
3. **말라기서 당시의 상황:** 말라기서를 읽어보면 포로 생활에서 돌아 온 백성들에게서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찾아보기 힘듭니다. 그런 상황을 유발하게 한 시대적 배경과 상황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:
 - 여전히 나라가 없이 페르시아의 통치 밑에 있는 암울한 상황입니다
 - 선지자들에 의해 선포되었던 밝은 미래는 오지 않은 상황입니다
 - 성전이 다시 세워졌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(3 장 1 절 참조)
 - 이러한 상황에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(1 장 2 절)
4. **말라기서에서 보이는 하나님의 경고**
 -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 (1 장 2-5 절)
 - 제사장들의 백성들의 죄 (1 장 6 절 - 3 장 12 절)
 - 더러운 빵과 제물로 제단을 더럽히는 백성과 제사장들 (1 장 7 절 - 14 절)
 - 바른 책무와 바른 길에서 떠난 제사장들 (2 장 5 절 - 9 절)

- 우상을 섬기거나 이방 여자와 결혼하고, 이혼을 하는 백성들 (2 장 10 절 - 16 절)
- 올바르지 않은 십일조와 헌물 (3 장 6 절 - 12 절)

1:8 눈먼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냐? 절뚝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냐? 그런 것들을 너희 총독에게 바쳐 보아라. 그가 너희를 반가워하겠느냐? 너희를 좋게 보겠느냐? 나, 만군의 주가 말한다. 2:8 그러나 너희는 바른 길에서 떠났고, 많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버리고 곁길로 가도록 가르쳤다. 너희는 내가 레위와 맺은 언약을 어겼다.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. 2:16 "나는 이혼하는 것을 미워한다.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. 아내를 학대하는 것도 나는 미워한다.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. 그러므로 너희는 명심하여, 아내를 배신하지 말아라." 3:10 너희는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놓아, 내 집에 먹을거리가 넉넉하게 하여라. 이렇게 바치는 일로 나를 시험하여, 내가 하늘 문을 열고서, 너희가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부지 않나 보아라.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. 3:16 그 때에 주님께서서는, 주님을 경외한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는 말을 똑똑히 들으셨다.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경외하며, 주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사람들을 당신 앞에 있는 비망록에 기록하셨다. 4:5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,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겠다. 6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,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킬 것이다. 돌이키지 아니하면, 내가 가서 이 땅에 저주를 내리겠다."

5. 말라기서에서 보이는 하나님의 약속

- 하나님께 드릴 헌물과 십일조를 온전히 드리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훔쳤다고 경고하신 하나님은, 온전히 드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늘 문을 열고 복을 부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(3 장 1-절 - 11 절)
-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그들의 이름을 비망록에 기록하고 특별히 분별하여 아끼시겠다고 약속하시고,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겠다고 하십니다 (3 장 16 절 - 18 절)
- 하나님의 특사 (3 장 1 절), 엘리야 예언자 (4 장 5 절-6 절) 를 보내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마가복음 1 장 2 절, 누가복음 1 장 17 절과 76 절에 나오는 것처럼 침례 요한으로 인해서 이루어졌습니다.
- 4 장 1 절과 2 절은 주님의 날을 말씀합니다. 그날은 1 절이 보여주는 것처럼 교만하고 악한 자들에게는 용광로의 불길같이 다가오지만,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2 절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, 치료하는 광선처럼 다가옵니다.